

‘인터걸’ 빛나간 코리안드림 -에이즈 확산 우려

김석 / 경향신문 기자

러시아 윤락녀 (속칭 인터걸)가 우리 나라 --- 유흥가를 점령하고 있다. 90년대 들어온 러시아 윤락녀의 숫자는 IMF사태로 인해 한동안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급증추세다.

자국에서 약사,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해도 한달 급여가 3-5만원에 불과한 이들에게 하룻밤에 수십 만원을 벌 수 있는 우리 나라 유흥가는 대단한 곳이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 등에 국한했던 이들의 활동지역도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가 가까워지면서 몇번 씩이나 “2차”라는 말을 꺼내며 밖으로 나가자고 재촉했다. 러시아 윤락녀들이 나오는 곳은 주로 단란주점 형태의 술집. 이들은 이곳에 갈 때부터 이른바 ‘2차’를 나가는 조건을 단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들의 접대비는 7만-10만원, 화대는 15만-20만원이며 부산은 접대비 5만원, 화대 12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역삼동, 논현동, 청담동, 압구정동, 천호동 등 강남지역에만 200명이 넘는 러시아 윤락녀가 있으며 이태원에도 수십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

경찰은 서울 역삼동, 논현동, 청담동, 압구정동, 천호동 등 강남 지역에만 200명이 넘는 러시아 윤락녀가 있으며 이태원에도 수십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산 초량동의 속칭 ‘텍사스거리’와 감천동, 해운대 등지에서도 모두 400-500 명이 ‘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 있다. 또 부산 초량동의 속칭 ‘텍사스거리’와 감천동, 해운대 등지에서도 모두 400-500명이 ‘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와 경남 마산, 창원 등 지방도시로까지 이들의 활동지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실태

지난 11일 밤 10시 서울 압구정동의 A 단란주점. 겉으로 봐서는 평범한 이 단란주점의 한쪽 방에 자리를 잡자 마담이 “러시아 아가씨를 부를까요. 한국 아가씨를 부를까요?”하고 물었다. 러시아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자 30분 가량 지나 갈색 머리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러시아여자 2명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라며 서투른 한국말로 인사한 이들은 이름들을 밝혔다. 손짓으로 술을 권하자 한입에 털어 넣던 이들은 밤 12

● 입국경로 및 생활

러시아 윤락녀들은 주로 러시아 안의 모집책과 국내의 소위 매니저(포주)의 계약에 따라 입국하게 된다. 모집책들은 하바로스크, 블라디보스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신문광고나 인력 송출회사들을 통해 러시아 여성을 모집해 한국에 있는 매니저에게 사진과 간단한 이력사항을 보내준다. 한국의 매니저가 사진을 보고 적당한 여성을 골라 3백만원 안팎의 소개비와 비행기 티켓을 보내는 것으로 공급계약은 성사된다.

러시아 유락녀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실제 이들이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적발된 러시아 유락녀들의 경우 술집에서 일하고 받는 뭇이 전대비 10만원 가운데 1만원, 2만원인 화대 중 3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매니저가 출국할 때 한꺼번에 주겠다고 돌려대면서 대부분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도 노예나 다름없다. 서울 한남동의 한 러시아 유락녀 숙소에 갔던 경찰관은 가재도구 하나 없는 방에서 러시아 여성 5명이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약 1개월을 잡꼭했는데도 이들이 외출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통제된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일부 러시아 유락녀들은 경찰에서 “포주에게 임신을 해서 일할 수 없다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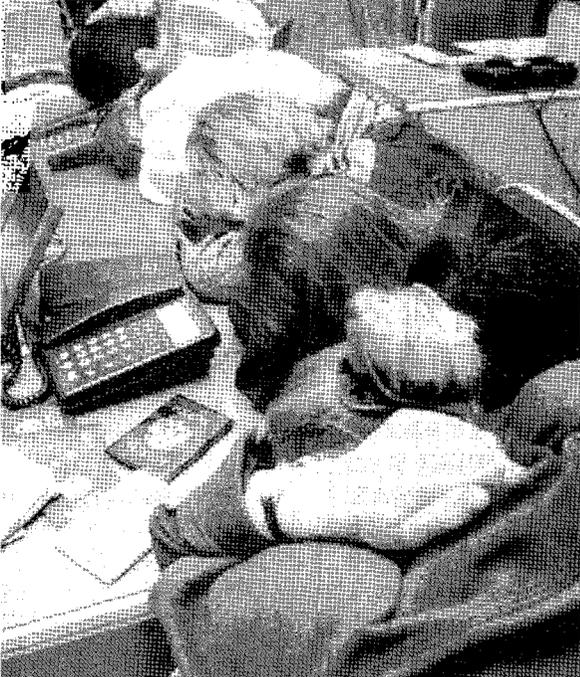
러시아 유락녀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에이즈의 확산이다. 현재 러시아는 각국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던 여성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면서 에이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우리 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적색경보’가 켜질 수 밖에 없다.

나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신한 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 문제점과 대책

러시아 유락녀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에이즈의 확산이다. 현재 러시아는 각국을 돌아다니며 매춘을 하던 여성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면서 에이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우리 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적색경보’가 켜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러시아 유락녀들은 워낙 유

성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에이즈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찰은 러시아 유락녀를 없애기 위해서는 위국심사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바이어 초청형식으로 비자를 발급 받는 러시아 여성들에



▲서울 경찰청에 적발된 러시아 유락녀들이 고개를 파묻은 채 조사를 받고 있다.

대해서는 현지 영사관이 초청장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나서 불법체류 러시아 여성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현지 영사관이 비자발급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단속업무에도 법무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